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키워야

활주로 연장 등 시설 보완해 중국·일본·동남아 국제선 유치

지역민 비행시간보다 많은 국내 이동시간 허비 더이상 없게

6·13 지방선거 지역현안 이번엔 해결을

<3> 광주공항·무안공항 통합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선 6기 광주 시와 전남도가 과제이자 지역의 핵심현안인 공항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진정한 '상생'의 길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제주 노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공항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 후 서남권 중추공항으로의 육성 방안, 광주·전남 등 이용객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정부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항 통합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무안국제공항에 대한 정부 투자가 지난 2007년 개항 이후 중단됐으며, 지역민은 비행시간보다 더 많은 국내이동시간을 허비해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해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가 광주 군 공항의 이전을 결정했지만 정작 시·도 간 민간공항 이전 논의는 구체적인 진전이 없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을 내걸었지만 '핵심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 같은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올 초 윤창현 광주시장의 민간공항 통합 의지를 분명화하면서부터다. 윤 시장은 '거대 답론'을 주장하며, "미래로 가는데 있어 광주·전남 경계를 뛰어 넘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중국 관계와 산업 지정 등에 있어서 고민해줘야 할 것이 바로 광주공항 이전 문제다.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선거구 획정 무산 예비후보 등록 차질...여야 "5일 처리"

광주 광역의원 1명 늘어날 듯

2월 임시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됨에 따라 2일부터 시작되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헌정특위를 통과한 공직선

이후 이재영 전남지사권한대행이 로드맵 제시와 함께 이전 후보지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공항 통합 문제는 민선 7기의 핵심사업으로 부상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 로드맵 작성을 광주전남연구원에 수시 과제 의뢰하면서, 6·13 지방선거를 전후로 지역 내에서의 논의도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광주시, 전남도,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이 광주공항과의 통합으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발돋움한 무안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을 상대로 국제선 유치에 나선다면 11년간 멈춰 있던 무안국제공항의 명실상부한 국토 서남권의 거점공항화가 가능할 것으로 시·도는 기대하고 있다.

무안공항은 또, 제주공항 등과 같이 저가항공사도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지역공항산업이 발흥할 가능성도 높다. 호남고속철 2단계(광주송정~목포)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면서 교통기관 간 시너지를 높여 타지역의 공항수요를 흡수할 시스템이 갖춰지면 지역 관광산업도 큰 상승 변수를 만날 수 있다.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그동안 본격적인 상생으로 나아가지 못한 원인 중 하나가 공항통합문제"라며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 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무안공항을 주제로 지역이 향후 무엇을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3·1절 99주년 만세 삼창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일 오전 제99주년 3·1절을 맞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독립 문까지 대형 태극기를 들고 행진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근룡호 수색 난항... 2명 사망·5명 실종

완도 청산도 인근 해상에서 거센 풍랑으로 어선이 전복돼 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관련기사 6면>

1일 완도해양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께 완도 청산도 남동쪽 6km 해상에서 연안통발어선 근룡호(7.93t·완도 선적)가 뒤집힌 채 떠있는 것을 인근을 지나던 유조선 우성호(4688t)의 1등 항해사가 발견, 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했다.

근룡호는 장어를 잡기 위해 지난달 26일 완도해경파출소에 출항 신고를 하고 하루 뒤인 27일 오전 9시55분 선장과 선원 등 모두 7명을 태우고 완도항을 출항했다. 해경은 구조본부를 꾸리고 대형함정 6척 등 경비함정 23척과 해경구조대, 민간 선박을

동원, 사고해역을 수색하고 있다. 해경은 신고 접수 1시간 20여분만인 오후 5시50분께 현장에 도착했지만 최대 3m에 달하는 파고 등으로 사고현장 접근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1일 오전 7시30분께 조타실에서 창원 출신 선장 진모(56)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A(26)씨 등 2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실종된 5명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영암 완도해경서장은 1일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기상 상태가 안좋아 선체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제53회 광주일보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

문화전당 ~ 금남로 ~ 영산강 생동하는 남도의 봄을 달린다

광주일보 주최 제53회 3.1절 기념 전국 마라톤대회가 4일 오전 8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코스 안내 18면> 올해로 53번째를 맞는 3.1절 기념 전국 마라톤대회는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한 3.1만세운동의 구국정신을 기리며 남도의 새 봄을 깨우는 활력 넘치고 매력적인 레이스입니다.

4일(일요일) 오전 8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출발 일부 교통통제 양해 바랍니다

이번 대회는 마라톤 동호인·직장인·가족등 2000여 명이 참여해 풀코스와 하프코스 2개 부문으로 치러집니다. 문화전당에서 출발해 도심을 가로질러 영산강길을 따라 달린다 서창교(하프코스)와 승촌보(풀코스)에서 반환점을 돌아 상무시민공원으로 들어오는 명품 코스입니다. 이에 따라 대회가 시작되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부득이하게 일부 도로의 교통 통제가 이뤄집니다. 시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최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주관 광주광역시육상경기연맹 · 마라톤세상
협력 진행 : 전남대 체육교육과, 함평시 반야봉사단, 동신대 생활체육학과 · 운동처방학과
코스 : 광화문마라톤모임 페이스팀, 전남대 동아리 노란자전거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지방보조청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지방경찰청 K water
협찬 광주은행 NH 금호고속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문화재단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일보

- 이홍재의 세상만사 ▶ 2면
- 신팔도유람-전북 고창·진안 ▶ 16면
- KIA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로자-사틴 스킨,
눈부신 피부의 새로운 기준**

헤라 로자-사틴 크림

속은 촉촉하고 겉은 보드라운 장미꽃잎 같은 피부, 로자-사틴 스킨
섬세한 결 게어로 완성한 이상적인 피부 컨디션입니다
로자-사틴 콤플렉스™를 함유한 크림이 선사하는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결로
메이크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최적의 스킨을 경험하세요

H E R A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hera.com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요금부담)